

위로·희망의 선율...새해 신년음악회와 함께

ACC 오페라 아리아·뮤지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
광주시향 드보르작 '신세계'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협연

음악으로 희망찬 새해를 여는 다양한 신년음악회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통합전당 & 재단 설립 1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제370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신년음악회 무대를 마련했다. 두개의 공연 모두 17일 열린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ACC 신년음악회

는 17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폭넓은 레퍼토리와 연주력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대중적이고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 및 뮤지컬 음악을 선보이는 무대다.

지휘자 김광현을 비롯, 세계 거장들과 함께 활동 중인 소프라노 임선혜, '팬텀싱어'에 출연해 '포르테 디 콰트로'를 결성한 테너 김현수,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악가인 바리톤 김기훈이 출연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ACC의 2023년 새해를 시작한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 슈만의 교향곡 제3번 '라인'에 이어 바리톤 김기훈과 함께하는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

라 '세비야의 이발사' 나 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그리고 소프라노 임선혜와 함께하는 레오 들리브의 '카티스의 처녀들'이 펼쳐진다. 테너 김현수와는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선보인다.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투나잇'은 임선혜, 김현수, 김기훈이 모두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국내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발해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되며 관현악·발레·오페라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 폭넓은 레퍼토리로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한 가운데 신한류 흐름 속 국립예술단체로서 자체 대 음악가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모색하

며 2022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재탄생, 대한민국 교향악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2023 신년음악회는 17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작품 46-8과 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작품 53, 교향곡 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를 선보인다.

지휘는 홍석원, 바이올린은 양인모다.

양인모는 2022년 제12회 시벨리우스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로 마그누스 린드베르크의 위촉곡으로 최고 연주상을 받았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의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양인모는 미리암 프리드를 사사하며 졸업했고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안티에 바이타스의 제자로 한스 아이슬러 음대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최진화 기자



소프라노 임선혜



레드기저 'COMMAND'

본능에 이끌리는 즐거움에 대한 탐닉

레드기저 개인전 '어딕션'
29일까지 드영미술관

2023년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믿는 이유는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일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 것으로 새해의 첫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화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아 타인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품을 구상하는 작가 레드기저(이의선)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드영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선보이는 레드기저의 두번째 개인전

'ADDICTION (어딕션)'은 그의 신작 17점을 포함한 회화 작품 20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명 'ADDICTION'은 중독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작가 레드기저는 본인이 원하는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갈망한다는 점이 중독 같다고 말한다. 작가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기본감정 중 행복,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시각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

작가는 그림에 대해 긍정의 에너지를 담은 즐거움 놀이라고 표현한다. 그림 속에 작가가 추구하는 단순한 삶과 즐거운 삶이 녹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작가 스스로도 그림은 끊을 수 없는 중독과도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작가는 이번 전시작품을 통해 끊을 수 없는 중독처럼 본능에 이끌리는 자신의 진짜 즐거움

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했다.

레드기저는 창작의 고통 또한 재미있는 일로 치부한다. 고통스러움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의 수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레드기저는 작가 노트를 통해 "창작이 고통스러운 거라면, 나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다. 나의 그림언어는 일러스트레이션 방식을 바탕으로 모호성과 구체성의 중간지점에서 이야기한다"며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즐겁다.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전시하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다. 기왕이면, 내 그림을 보러 와준 관람객들이 내 그림에 담긴 스토리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창작은 즐거움이다"고 밝혔다.

레드기저는 상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일러스트레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광주폴리 2곳 아트조명 설치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가 광주 도심 속 광주폴리에 아트조명을 달았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폴리 아트조명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주폴리 시즌프로 그램으로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광주폴리에 아트조명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충장치안센터 앞에 위치한 '99칸(피터 아이젠만)'과 광주 서석초 부근에 설치된 '아이러브 스트리트(MVRDV)'에 아트조명을 달아 놓을 상태다.

작품 '99칸'에는 'HAPPY NEW YEAR'의 글귀 아트조명을 설치했다. '99칸'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광주읍성의 북문터에 설치된 작품이다. '아이러브 스트리트' 작품과 인접한 광주 서석초 담벼락에는 꽃과 새 모양의 LED 채널조명이 설치됐다.

광주폴리 시즌프로그램 아트조명은 1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이나라 기자



충장치안센터 앞 '99칸(피터 아이젠만)'에 설치된 'HAPPY NEW YEAR'의 글귀 아트조명.

전남 아름다운 풍경 도립미술관서 한눈에

신소장품전 오늘 개막

전남도립미술관 신(新)소장품전이 3일 개막된다.

전남도립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인 신소장품

전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전남도립미술관이 수집한 작품을 선보인다. 신소장품전에는 동시대성과 현대성을 지닌 작품을 비롯해 전남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전남의 아름다운 명소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만나 볼 수 있

다. 소장품은 권세진, 김동석, 나현, 박종영, 이정록 등 작가 24명의 작품이다.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설치,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가 여수 출신 박종영 작가는 송실대 공대 자퇴 후, 홍익대 조소과를 거치며 조각과 구동장치를 결합한 키네틱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나주 출신의 최요안 작가는 지나간

역사를 상기시키는 작품을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 나현 작가는 다큐멘터리에 이미지를 결합해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한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다양한 장르들로 구성된 도립미술관의 이번 신소장품전은 관람객들이 동시대 미술작품의 미감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3월 26일까지. /이나라 기자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학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영업직원 수시모집





대표이사 **신철우**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